지금 내 몸뚱이를 이끌고 가는 내 자성신을 근중하게 생각하세요

☞ 21면에서 계속

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씀씀이로 쓰이고 있으면서 행하고 말하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사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그 철없는 사람들 얘기 했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딴 혹성이라고 철없는 게 없을까요? 그리고 국방이라든가 또는 정보국이라든가 또는 의학계의 연구 실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라도 갖다가 붙잡아다 실험대에 올려놔야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사차원 세계의 문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지만 사차원은 이 삼차원에 자기 문 드나들듯 해요. 그렇다면 사차원, 오차원에서 드나들어. 그렇다면 사차원에서는 삼차원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다 드나들게 돼 있어. 권리가 있어. 사차원이라는 권리증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육안으로 자세히, 그것도 보여야 보여 주는데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거든. 어느 때에 모두 병이 많이 일어났다 이럴 때는 우리 에너지를 작간에 뺏기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빈집인데, 뭘! 주인이 없는 집에서 좀 뺏기로서니 뭐,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는데 뭘 그래.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하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내가 벌이를 해서 먹고살 양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스승이기 때문에, 일체 만물만생이 다 내 스승이기 때문에, 나는 그 스승한테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스승님들한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무지렁이가 이런 뜻을 알았겠습니까? 난 조금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무학이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무학이 아니었더라면 그 진실성이 없었고 진실이 없었더라면 광대무변한 이 이치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문제들, 그것을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즉 말하자면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이익이 없다는 얘깁니다. 아래에서는 아래대로 우리한테 주먹에 매여 있으니까 항상 이익을 못 보고 패배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생물이나 동물이나 우리 아래 하의 동물들은 우리 사람의 손에 많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막 악을 악을 써도 그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 소리를 하거나 말거납니다. 그냥 아랑곳없습니다. 붙잡아다 놓고 모습이 개고, 모습이 소고 말이고 토끼고 쥐고, 모습이 그러하니까 그것은 아예 우리 삼차원에서는 갖다 집어다가 실험대에 놓고서, 실험을 해야만 하겠으니까 말입니다. 실험대에만 올려놓는 게 아닙니다. 생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보고서 파악을 해서 그걸 연구를 하고 그럽니다. 사람을 놓고 연구를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사람도 놓고 연구는 하지마는 실험대에 올려놓고 연구는 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어저께 얘기한 대로 이 우주가 지금 하나가 아니라 셋씩이나 있는데 그 셋 뒤에는 그렇게 방대한 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점에서 나온 것인가요? 요 한 점에서 나온 겁니다, 한 점. 그 방대한 게. 우리 몸뚱이도 지수화풍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수화풍이 한데 모이면 얼마나, 에너지와 가스가 얼마나 그 힘을 발휘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두가 한데 모여서 이렇게 집을 짓고, 이게 몸뚱이가 집이라면 그 속에서 모든 생명들이 생긴 것이 집이 생기니까 생긴 겁니다. 모두가 근원 없는 물질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몇 부분에 소임자가 있고 바로 회장이 있단 말입니다. 회장, 사장, 공장장 이게 다 있단 말입니다. 육 개국의 공장장이 다 있단 말입니다, 자디잔 건 빼고도. 그렇듯이 오대양 육대주에 전부 이 문제가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각처 각급에서 앞에는 앞에대로 궤도를 올바로 돌고 있는 거는 우리를 탐험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신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화해서 창조가 됐나.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고 있나. 지구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오지마는 만약에 오신통에 말려서, 예를 들어서 노예가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되고 잘됨이 없이 무조건 달려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 에너지를 뺏기는 수가 허다히 많습니다. 우린 여기에서도 에너지를 뺏기지마는 전체 그 힘 있는 데서 아주 멀리서도 딱 잡아들면 빼 가지 안 빼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물질만 가지고 얘길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도 안락사가 있었습니다. 아, 부처님께서는 안락사라는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그건 무명을 벗겨 준 거지 생명을 죽인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무명 때문에 진짜 생명과 그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열 식구를 다 희생을 시킬 때 그때 안락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안락사를 할 때에 무명만 친 것이지, 그것은 환토를 시키고 살려 준 거지 죽인 게 아닙니다. 건진 겁니다. 그런 자비를 가지고서 안락사라고 했는데 터무니없이 모르고, 이것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안동답답이로 강도가 와서 칼로 찌르듯이 생각하고 자기 배고픈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그냥 삼켜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경향이 생기느냐? 삼차원의 지금 이 공기라든가 이러한 모든, 즉 말하자면 뭐라고 이름을 할까? 여긴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름은. 이 생활의 모든 거에, 공기를 가지고 우리 생명을 살리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자기네들은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추락돼서 여기에 떨어졌다면 자기 호흡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다르지마는 그 행하는 것도 다르고 살림살이도 다르고 모두 다르고, 여기 지구의 이 생태와 거기의 생태가 모든 것이, 살고 있는 그 근본이 다른 게 아니라 사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녹음 안됨) 우린 요런 거 한 그릇 가지고 배를 채울 수 있는데 거기서는 열 그릇이 한 그릇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배를 채웁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태가 죽어지니까 그때는 '나는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세 가지 종류,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혹성에 따라서 다른 부분의 형태가 있고 다른 부분의 마음의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선이, 선이 있는 것은 여기 지구의 사람들이 만약에 이 성군, 즉 말하자면 성주가 부처님 자린데 성주의 그 뜻을 두루 다 서로 통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 자유자재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벌써 저기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그 모습을 해 가지고 나도 다닐 수 있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 몸이 열둘도 되고 백도 되고 천도 될 수 있어야 된다. 또 그것도 하나도 없을 때는 없어도 된다. 또는 하나가 될 땐 하나가 된다. 내 씀씀이에 의해서 그것은 사용된다." 이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들어오면 "어, 그래." 그 모습은 형태지 진정이 아닙니다. 그 진정을 내 진정과 더불어 체인지 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또 체인지를 하고 내가 그리로 들어가느냐 그쪽을 잡아다녀서 나한테다가 체인지를 하느냐 이게 문젭니다.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나와 같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저쪽 거를 끌어 잡아당겨 나한테 넣는다면 또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아만이 있으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주고, 아만이 없고 참 겸손하다면 그쪽을 나한테다 넣고, 이렇게 상황 따라서 물 흐르는 것처럼 순리적으로 그것을 해 나가고 있죠.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이 있다면 학을 다 버리고선 그 백지를 알아야, 백지를 알고 난 뒤에 그 학은 나중에 써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지를 모르고서야 어찌 그 학을 올바르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거, 이거 낱낱이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궤도를 도는 이 혹성, 외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얘기 안 하고요. 외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도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이것뿐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태양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전체 한데 합쳐서 그 근본이 어떠한 게 근본이냐. 그렇게 광대하고 크건만 그 근본이 바로 내 한 점의 마음에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수많은 그것이, 이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져서 그것을 이루고 이루고 하면 큰 성을 또 이루죠. 끼리끼리들 모여서 한 팀이 된다면 또 그게 성을 이루는 거죠.

> 콩이 콩나무가 됐는데
> 콩나무는 콩씨가 제 나무에 불은 줄 모르고
> 작년에 씨 심은 그 콩씨를 찾고 있으니
>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도 끼리끼리들 살죠? 아, 그게 끼리끼리들 있습디다.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끼리끼리, 정보원은 정보원대로 끼리끼리, 지게꾼은 지게꾼대로 끼리끼리, 소 잡는 사람들은 소 잡는 대로 끼리끼리, 아니, 이건 전부 끼리끼리라. 그리고 친구들도 맘에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야. 이게 아닙니까?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대로 끼리끼리, 노인네들은 노인네들대로 끼리끼리. 이것은 누가 막지 못합니다. 이거는 자연법칙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법칙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는 한 점의 마음으로서에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소립니다.

만법이 어디에서부터 나가느냐 하면 마음 한 점에서 그 모든 작용을 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컴퓨터, 오신통이 모두 한 점의 마음에 있다 이거야. 오신통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야. 자동적으로 같이, 눈 간 데 귀가 가고, 귀 간 데 눈이 가고, 코 간 데 입이 가고 말입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다 흡수돼서 돌아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편리하고, 무겁게 짊어지지도 않고 이렵니까.

여러분은 억겁 전서부터 나오면서 노비 문서를 갖다가 짊어지고 말입니다, 여기서 저 달나라 갈 만큼 그냥 차근차근히 쟁여서는 무겁게 짊어지곤 그 습을 한 번도 떼어 놓지 않고, 그래도 그 자기 노비 문서가 제일이라는데요. 자기라는데요, 뭐. 그걸 짊어지고 그래도 무거운 체도 안 하고 그게 좋다고 웃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는 거래요. 왜 자유권을 갖고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고 하나하나 끄달리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앞에 창살이 없는 것 같습니까? 창살이 있고 문지방이 높고 천야만야한 산봉우리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기가 막힐 때가 있고 불이 일어날 때가 있고 건너가지 못할 때가 있고 야, 이건 한두 건이 아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외성에서의 그것도 한 개로 따로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생명은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즉 말하자면 5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10도까지 뜨겁고 그 기운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요만한 기운을 가졌다면 그 사람네들은 이만한 기운을 가졌다 이겁니다. 기운이 그렇게 많은데 기운 없는 사람이 지지 뭐, 별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할 거 같으면 그 기운 이상 가게 다 자비하게 조절할 수 있으니 여기서도 살고 거기서도 살고, 거기서도 사니까 나 아님이 하나도 없을 때 비로소 그것을 다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그런 태양들과, 어저께도 얘기했지마는 대의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것이 외성이지마는 외성을, 또 이 혹성을 도는 새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각각 각처에서 어떤 것은, 딴 혹성에 있는 것은 똑 고슴도치같이 생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지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얘길 하겠습니까마는 차근차근히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그런 상태를 얘기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이것을 어떡할 수가 없죠, 뭐. 믿거나 말거나죠, 뭐. 허허허…. 할 수 없는 거지만 말입니다.

생각을 잘해 보신다면, 우리가 여기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잘 파악을 하고서 안다면 그것이 알아집니다. 여러분이 용어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도 어머니 배 속에서 나오기 이전에는 이름을 안 붙였을 거예요. 나는 이름을 몰라. 이 말을 할 때는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어.

오늘은 이만 그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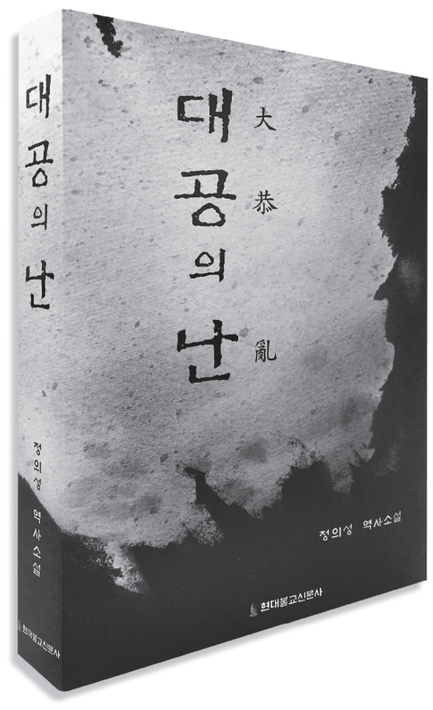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86년 3월 2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02)732-1520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